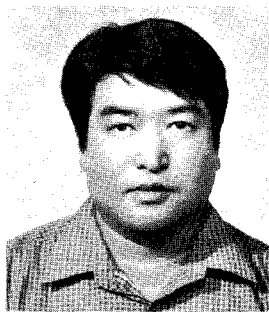


지령 200 호를 맞는 「월간양계」에 바란다



김 영 옥

제일사료 상무
본지 편집위원,
월간양계 초대 편집부장

“앞으로 계속
양계인을 위한 대변지가
되길 바라며...”

1969년 11월 3일 부화 - 지령 200 호

1969년 11월에 빼악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나라 양계업계에 첫 선을 보였던 병아리-「월간양계」지가 1986년 6월호로서 지령200호를 맞이한다고 하니 「아니 그동안 벌써 그렇게 되었나? - 가만있자, 200호면 그동안 16년 8개월이 지났구나」하는 느낌과 함께 지령 199호인 5월호를 새삼스럽게 손에 들어보니 그 묵직한 느낌이 마치 다 자란 성인이 된 아이의 듬직한 어깨를 뒤에서 바라보는 기분과 같이 믿음직하다.

지난 16년 8개월 동안 「월간양계」지가 이 업계 및 학계에 끼친 여러가지 공로야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 일 것임은 아마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보급, 시장정보의 전파, 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 올바르게 못한 현상에 대한 비판 등등 이루어야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과 공헌을 하여 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필자에게 지령 200호를 맞이하면서 「월간양계」에 바란다-라는 제목 아래에 부제로-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심으로 라는 주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월간양계」지의 창간 당시 실무자로서 이제 막 성인(成人)

이 된 「월간양계」지가 어떤 방향으로 대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이리라 예상되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월간 양계」지는 협회에서 발간되는 양계인을 위한 잡지

「월간양계」는 대한양계협회에서 발간되는 회원을 위한 잡지이며 대한양계협회는 양계사업자들의 단체이다. 물론 협회의 운영자체가 회비(순수한 회원들의 연례 또는 월례회비)만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최소한 표방되고 있는 명분은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기술수준향상등 회원을 중심으로한 단체에서 발간되고 있는 잡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간양계」지의 표방 순위는 항상 회원 즉, 양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끔 협회의 입장(대 정부 또는 대 관계기관, 협회내의 이사진, 광고업체 등등)때문에 회원우선순위인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슬며시 지나쳐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될 때 「이래서는 안되는데」하는 생각이 들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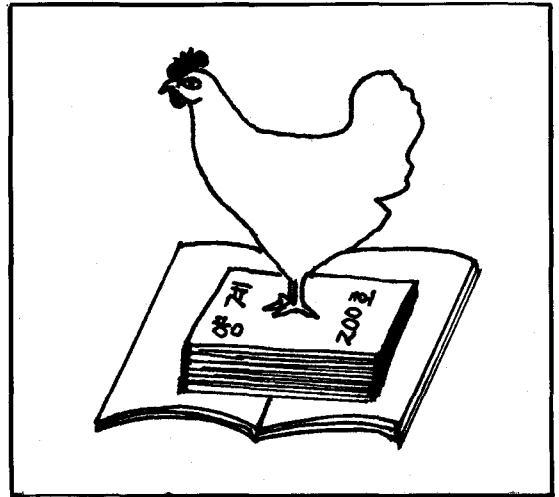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몇가지 제의를 하게 되면 첫째, 「월간양계」 지에서는 농정을 담당하는 정책입안 실무자 또는 연관산업 연구를 위한 학자들이 반드시 보지 않고 지나가면 안되는 고정란이 신설되었으면 한다. 때로는 몇가지 통계 숫자일 때도 있을 것이다 또 때로는 발표된 통계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릴때도 있을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 지워질 수 있는 정책입안 또는 연구의 기초자료 및 기초여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반드시 매월 게재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둘째,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특집이 꾸며질때 기초에서부터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인력, 시간등 때문에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마치 신문보도 처럼 「...라고 하더라」식의 기사는 잡지에서는 용납될수 없을것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하여는 취재 및 편집을 위한 충분한 스텝진이 뒷받침 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모든 문제를 시장의 요구(Market Need)로 바라보는 안목과 이를 위한 기초조사등은 반드시 「월간양계」지에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업계의 미래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전이 여러모로 제시될수 있었으면 한다.



서기2000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매월 또는 몇개월에 한번쯤은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이 모아진다면 아마 「월간양계」 지에서는 모아진 자료들을 집대성 하는 출판사업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다시한번 월간양계 지령 200호를 축하드리며 성인으로서의 「월간양계」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 주역이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발간 200호를 맞아 항상 본지를
아껴주신 양계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